

韓國美術史學會創立 30周年紀念辭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韓國美術史學會의 創立30周年紀念 全國學術大會 및 유공자에 대한 功勞牌와 感謝牌 贈呈式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및 회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1960년 8월 15일에 考古美術同人會로 출발하여 현재의 社團法人 韓國美術史學會로 변모하기까지 우리 학회는 지난 30년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동안 創立會員을 위시하여 역대 회장 및 임원과 간사 여러분께서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기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몰심양면으로 우리 학회에 도움을 주신 후원자 여러분과 항상 학회의 각종 행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무언의 성원을 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의 노력과 후원,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의 학회는 거듭나며 회원 750여명을 지닌 法人體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학회를 창립하시고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金元龍, 秦弘燮, 黃壽永, 故全鏐弼, 故崔淳雨, 故洪思俊 여러 선생님들에게 功勞牌를 증정함으로써 원로 학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후학들이 평소에 간직하고 있는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비록 작게나마 표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들의 건실한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 미술사학회와 미술사학계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회가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밖에서 몰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시지 않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 尹章燮, 鄭允謨, 黃潤克 선생님들께서는 더욱 큰 신세를 학회가 졌습니다. 오늘 이 분들에게 感謝牌를 증정하는 것은 그동안의 도움에 대한 우리학회와 회원들의 고마움과 정성의 조그마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 분들의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기를 빕니다.

이외에도 鄭永鎬, 孟仁在, 鄭良謨 선생님 등 역대 會長과 任員을 비롯하여 張衡植, 黃允默 선생님 등 우리 학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바, 이 분들에게는 이와 유사한 다음 기회에 공식적인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韓國美術史學會 創立 30周年的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은 중지를 모아 몇가지 뜻 깊은 일들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학회의 마크 제정, 기관지인 학보의 題號 변경, 사무실의 확보, 지금까지의 연구를 회고하고 전망하는 학술대회의 개최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마크 제정과 학보의 제호변경은 지난 9월 22일(토요일)에 개최된 정회원(구 평의원) 임시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학회창립 30주년을 기하여 학회의 마크를 제정기로 결정하고 그 도안을 모집하여 왔는 바 4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백제의 인동무늬를 채택하여 도안한 金東賢선생(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장·본학회 감사)의 작품이 채택되었습니다(동봉한 학술대회 프로그램 표지 참조). 이 마크는 채택된 순간부터 사용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회와 관련된 일체의 것(학술지, 각종 문방구 등등)에 활용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인동무늬 마크가 지닌 상징성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인동무늬는 우리 나라의 고대 미술품에 자주 등장하던 것이므로 우리가 연구하는 고대문화와 미술 및 그 전통을 나타낸다.

둘째,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식물이므로 강인함과 굳셈, 끈기와 인내를 의미하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크게 기여하는 우리 미술사학계의 표상이 된다.

셋째, 번성하는 식물이므로 우리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뜻한다.

넷째, 상서로운 식물이어서 현재의 길상과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

다섯째, 그 무늬는 고대에 서방에서 전래되어 한국적으로 발전된 것이므로 외래문화의 올바른 수용과 한국적 재창조 및 국제성을 상징한다.

이 마크가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 미술사학회와 학계, 그리고 회원 여러분이 모두 무궁한 발전을 이루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학회가 1960년에 창립된 이래 공동의 발표장이 되어 온 학술지「考古美術」의 題號를 앞으로 계속 지켜갈 것인지 아니면 30주년을 기하여 장기적 안목과 발전지향적 입장에서 변경할 것인지를 문제를 놓고 그동안 신중하게 숙고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고고학과 미술사 관계의 논문이나 자료들을 함께 게재하던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는 고고학 전문 학술지들이 몇군데에서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회의「考古美術」에 더 이상 고고학 논문이 실리지 않게 된지 오래되어 잡지의 제호와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미술사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30주년을 맞이하여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폭넓게 제기되어 온 점도 참고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창립회원을 위시한 정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타진해 본 결과 변경을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일부 회원들은 전통을 중시하여 그대로 두기를 바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쪽이든 학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충정에 있어서는 한결같아 모두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논의한 바 참석자 전원이 제호의 변경에 찬동하였으므로 새 제호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美術史」(일본 미술사학회),「美術史學」(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미술사연구」(홍익대학교),「美術史學報」(대우재단)등의 제호는 이미 다른 단체나 기관에 의해 사용되고 있어 이것들을 피하여 결정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지한 논의 끝에「美術史學志」,「美術史學研究」,「韓國美術史學」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고, 마지막 단계에서「美術史學志」와「美術史學研究」를 놓고 비밀투표에 결과「美術史學研究」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새 제호는 우리 학회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결과를 담은 제188호(1990년 겨울

호)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88호부터는 우리 학회의 기관지가 「美術史學研究」라는 새 제호로 간행될 것입니다(영문으로는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그러나 새 제호가 충분히 홍보되고 이미 간행된 잡지와 합집이 매진될 때까지 기왕의 「考古美術」 제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題號의 集字를 위해서는 우리 학회의 金禧庚先生, 文明大 研究理事, 李完雨幹事가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의 마크 제정과 잡지의 제호변경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30주년을 기하여 더욱 알찬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회원들의 진지한 뜻과 의견이 모여져 이루어진 일이므로 우리 회원 모두가 이 결정들을 존중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의 사무실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선학들께서 모아온 기금을 모두 투자하여 하바드오피스텔 601호(서울 관악구 봉천4동 875-7번지)를 구입하여 입주할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학회가 더 이상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한곳에 항구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韓國美術史研究30年：回顧와 展望”이라는 題下의 全國學術大會는 각별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鄭良謨회장님 재임시에 결정된 이 학술대회는 해방 이후 우리 학회와 학자들이 쌓아 올린 많은 연구업적들을 분야별로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보다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회 창립30주년을 기하여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결과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반성해 보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30~40대의 젊은 소장학자들에게 위촉드린 것은 그 분들로 하여금 선학들의 업적을 철저하게 섭렵하여 자신들의 보다 큰 학문적 성장과 심화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고 또한 그분들의 진지한 검토와 솔직한 견해 피력을 통하여 학회와 학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학자들의 냉철한 발표와 이에 대한 기성학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통하여 30주년 이후의 우리 학회와 학계의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잡히고 더욱 큰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의 행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東國大學校의 申國柱 總長님과 黃壽永선생님, 總評을 해 주실 秦弘燮선생님과 金元龍선생님,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학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뜻 깊은 학술대회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신 文敎部和 관계자 여러분, 成保文化財團의 尹章燮會長님, 海剛陶磁美術館의 柳光烈館長님과 崔健學藝室長, 이 모든 분들의 따뜻한 협조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의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애쓴 우리 학회의 임원들과 간사들에게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10월 27일

社團法人 韓國美術史學會 會長 安輝濬